

# “정부, ‘인구 위기 비상사태’ 선포 검토해야”

### 이용섭 前광주시장, ‘인구문제 세미나’ 강연서 주장 尹대통령 직접 나서 임기 내내 문제 해결 앞장서야 단기목표, 합계출생률 1명 회복·출생아 35만명 제한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정부가 ‘인구 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사진) 전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3시 ‘전일빌딩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사)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 ‘인구문제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인구는 국력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인구 증가가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다. 초저출산은 재앙이고 망국병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나름 다각도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저출산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외도 직결돼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 큼 대통령은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말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임기 내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또 “구체성이 없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만 하면 추동력이 떨어지므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확실한 단기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기적 목표로 합계출생률 1명 회복과 출생아 35만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출산율 제고에 광복할 만한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과감한 인

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들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 통합과 연합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지역국가(Region State) 개념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골 기초자치단체의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는 대도시를 품어 안은 초광역 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추진해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이 문제를 광주·전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광주(144만명)와 전남(182만명)이 따로 가면 인구 이탈과 경제적 낙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1천년을 함께 해온 역사적 공동문명체이고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정서적 일체감 회복,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해소,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특히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에서 항만과 천혜의 자원인 2천여개 섬을 지닌 전남과 의료·교육·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광주가 하나 되면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되며 인구이탈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2004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하고, 2005년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까지 제정됐다”며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과거를 뛰어넘는 과격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유사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것은 바로 같은 것”이라며 ▲인구세 신설 ▲다출산 세대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배정 ▲출산과 연계한 대출 지원 ▲이민 확대 정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우리 정부, 일본 정부보다 홍보 더 나서”

### 日 오염수 방류 관련,尹 정부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광주·전남 수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면서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전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제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징정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집중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 주철현 ‘국가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19일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 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재산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토양·수질·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인 연간 12조4천216억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돼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들이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 기업·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지원기금 출연할 경우 ▲기업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 尹대통령, 프랑스·베트남 순방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4시 46분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김진수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